

## 북한, 광주U대회 불참 통보... “정부가 대화 나서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정치적 이유’ 들어  
‘메르스’ 이은 최대 악재... 대회 10일 앞두고 흥행 비상  
광주시·조직위 “정식 절차 아니라 불참 단정 어렵다”

‘메르스 사태’속에서도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마지막 흥행 카드로 꼽힌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마저 적신호가 켜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북한팀 참가 실현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21면>

북한이 간접적으로 광주 U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공식적인 불참 통보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설득 여부에 따라 막판 참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광주시장)과 김윤석 사무총장은 2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다음달 3일 개막하는 광주U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뜻을 알리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오후 6시31분 광주 U대회 조직위 이메일로 북한대학스포츠연맹 전극만 회장 명의의 불참의 뜻이 담긴 이메일이 수신됐다. 불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갈 수 없다’고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메일에서 북한은 “FISU 쪽에서 기술여주인 최상의 노력에는 유감스러운 바이며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뒤덮인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메일 수신인이 광주시장이 아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에릭 샤프트 사무총장 명의로 돼 있으며 FISU 측에 확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은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이메일의 진의 여부를 현재 통일부 등과

함께 확인중이며, 불참 통보의 정식 절차가 아닌 만큼 북한의 대회 불참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대회 불참 통보는 조직위와 FISU측에 동시에 전달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FISU측에 전달되지 않은데다 이메일의 수신인도 뒤바뀐 채로 왔다는 점에서 불참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유재현 위원장은 “광주U대회 조직위는 북한이 이메일에서 밝힌 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늘 열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북한의 참가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북한팀의 U대회 불참 소식이 지역 정치권과 체육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참 통보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이 그 배경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북한에 즉각적인 대화를 제안해 북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체육회 산하 육상 등 52개 가맹경기단체 회장단도 이날 광주체육관 앞에서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호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간절히 기대하며, 메르스 청정지역인 광주에서 남북이 두손 맞잡고 대회에 참가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유재현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U대회는 정치색이 철저히 배제된 전 세계 젊은이의 대축제라는 점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는 평화와 화합의 대회 개최정신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참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난감하네요”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유재현 위원장(광주시장·오른쪽)과 김윤석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북한 선수단의 U대회 불참 통보’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 이후 고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한치의 빈틈 없이 메르스 철벽 차단”

함께 해요! 성공 U대회

#### ① 김영진 선수촌 병원장 “광주 의료수준 알릴 기회”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광주U대회 선수촌 병원 운영은 계획보다 업무가 늘었지만 감염 차단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광주U대회 선수촌 김영진 병원장(전 전남대병원장)은 22일 “선수촌 의료진은 메르스 차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회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U대회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광주시와 지역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뜻을 합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광주는 여전히 청정 지역인 만큼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참가 선수들의 심리상태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종목별 팀



닥터들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특히 완벽한 감염 차단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다소

과도할 정도로 방역과 예방에 힘 쓸 생각입니다.”

그는 또 “중동지역 400명의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에 대해 매일 열체코를 할 계획이며 숙소 출입구, 병원 입구, 식당 입구 등 주요 지점에 발열감지기를 설치해 외국 선수들에게 신뢰감을 줄 생각”이라면서 “선수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용역 인력 등 1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인력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진 병원장은 “이번 U대회 기간 광주가 메르스를 극복한다면 광주의 위상과 광주 의료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문화수도 조성, 문화부 ‘課단위’ 사업 전략

문화부, 직제개편 입법예고  
추진단 대폭 축소 과에 배속  
전당 운영 공무원 50명으로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될 대형국책 현안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문화부의 과(課)단위 사업으로 전략하게 됐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조성사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

을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직위는 지난해 차관보급에서 국장급으로 한 차례 강등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과장급까지 격하된다. 현재 문화전당 건립 등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추진단의 공무원 40명 가운데 32명은 문화전당 운영할 정부 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배치된다. 그 나머지 8명과 추진단의 관할 업무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

화부 대중문화산업과로 흡수된다.

이는 조성사업의 전체 4대 현안 가운데 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제외한 3개 과제(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를 문화부의 과 단위에서 추진하는 셈이 된다. 이들 사업은 광주시 7대 문화권으로 나눠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장기사업으로, 오히려 문화전당 건립은 일각에 해당된다.

한편, 오는 9월 개관할 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 조직에 공무원 32명과 전문인력 18명을 배정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알려진 100여명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이들 인력으로는 성공적인 개관준비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 문화부 운영결과로 제시된 문화전당의 필요인력은 423명이었다. 문화전당을 이끌 전당장의 직위도 2급 국장급으로 정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22일 성명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당초 위상에 걸맞게 직제를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국민 요청  
손연재  
출전

광주 U대회  
UNIVERSIAD GWANGJU 2015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나는 것이 되게 하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찾아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